

##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강한 공공기관으로 응비

# 인사말

## 한국어촌어항협회장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농림수산식품부 임광수 수산정책실장님과 귀빈 여러분, 그리고 협회 회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협회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수산부국 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바다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수산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협회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수산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 협회는 수산관련 조사·연구 활동과 국제기술교류 협력을 강화하였으며, 어항시설물 안전점검과 어항정화 상시수거시스템 확립, 연안환경 정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바다관광포털 사이트의 성공적인 운영과 바다관광 마케팅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사업 등 바다관광 진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원 증대뿐만 아니라 도시인들에게 관광·문화의 복합공간인 어촌·어항을 홍보하여 우리 어촌과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도 했습니다.

협회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핵심 역량 위주의 최소 인력 운영과 함께 조직을 시대적 환경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고, 업무프로세스 및 제도개선, 성과에 상응하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하여 예산절감을 극대화함으로써 성과위주의 전략경영 실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이제 협회는 세계의 변화와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성장에 발맞추며 협회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수립한 'New Vision 2020'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수산부국을 실현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기후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어항의 안전관리와 환경개선에 집중하여 어항의 녹색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연안환경 정화와 수산자원의 조성 회복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어장의 녹색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셋째, 친환경 바다관광자원의 개발과 마케팅, 서비스 산업화를 지원하여 바다의 녹색서비스를 창출하겠습니다.

넷째, R&D 강화와 해외자원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여 수산업 기반의 미래 역량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관리 체계화와 조직문화의 개선으로 선진적인 경영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도약할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녹색성장시대에 걸맞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강한 공공기관으로 웅비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각오와 의지를 서로 확인하고 굳게 맹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지난 1월 25일 여러분의 애정과 협조에 힘입어 협회 자체청사를 확보하여 입주하였습니다. 협회가 안정되고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우리 협회에 주어진 업무는 물론 새롭고 항구적인 업무를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뜻 깊은 자리를 빛내주신 귀빈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회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새로운 수산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동반자로서 협회의 업무 기능을 대폭 보장

### 장관치사

농림수산식품부

존경하는 심호진 회장님을 비롯한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원과 임직원 여러분!

1987년 6월 협회가 설립된 이후 벌써 23년을 맞았다니 참으로 놀랍습니다.

돌이켜 보면, 1987년 한국어항협회를 모태로 하여 2005년 새롭게 출범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기존의 어항기능에서 어촌개발과 어장정화의 기능까지 기능을 확대되게 됨에 따라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어촌어항의 기초조사 및 국가어항의 안전점검,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어장정화 사업 등으로 명실상부한 어촌어항 및 어장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어촌어항협회 관계자 여러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금융 한파로 인한 국가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 관, 산학 등 모든 부문에서 역량을 집중한 결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산업도 어선 감척, 품목별 대표조직의 육성 등 각종 수산시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지난해에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어느 해 보다 큰 폭으로 향상된 한 해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촌어항협회 관계자 여러분! 우리부에서는 어촌과 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어업인들의 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수산업 전체의 인프라 역할을 하는 어촌어항부분에 2,45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촌어항 기반시설과 관광어촌 기반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아울러, 한정된 국내 어촌·어항개발뿐만 아니라 해외 수산자원확보 및 수산물 수출전진기지 구축을 위한 해외 어항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바다 레저형·휴양형 등 다양한 기능의 어촌모델을 새로이 개발하여 어촌관광 및 정주여건 확충에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하여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정부는 변화하는 새로운 수산정책을 수행하는 정책 동반자로서 협회가 원활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회의 업무 기능을 대폭 보장하는 방향으로 금년에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총회를 계기로 시대를 앞서가는 창의력과 생동감 넘치는 추진력으로 올 한해가 어촌어항 발전에 큰 족적을 남기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며 관계자 여러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바다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수산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

## 한국어촌어항협회 정기총회 성료

한국어촌어항협회는 3월 24일 오전 11시 협회 대회의실에서 2010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09년도 주요사업실적 및 결산과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보고하고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올해 바다의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일류 수산전문기관이라는 비전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수산부국의 실현이라는 미션아래 경영목표 202억원 규모의 수지예산으로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어항의 녹색공간 조성 △어장의 녹색동력 확보 △바다의 녹색 서비스 창출 △수산업 기반의 미래역량 개발 △선진적인 경영인프라 구축 등 5개 전략도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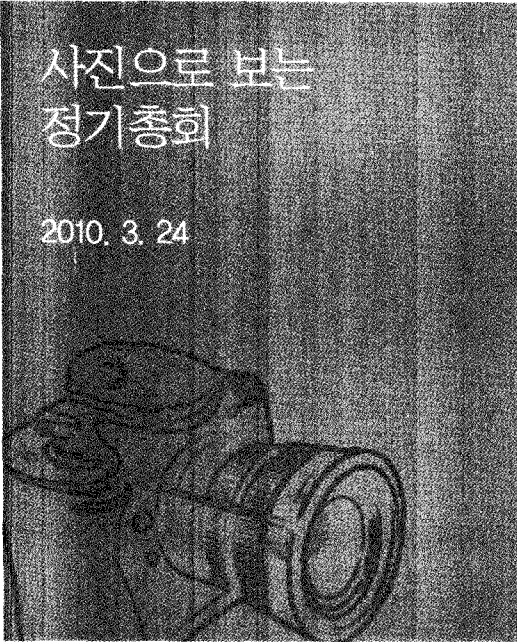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우리나라 어촌어항어장 발전 및 협회발전에 공이 큰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2010년도 정기총회

2010. 3. 24. 한국어촌어항협회

# 사진으로 보는 정기총회

2010. 3. 24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협회는 세계의 변화와 국가전략인 저탄소 녹색 성장에 발맞추며 협회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수립한 ‘New Vision 2020’ 중장기 발전 계획을 통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삶의 질 향상으로 수산부국을 실현을 위하여 힘차게 노력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는 80여명의 내외 귀빈과 회원이 참석했다.



▲장태평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은 치사를 통해 “어촌과 어업인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시키고, 어업인들의 복지정책 등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임광수 수산정책실장 대독〉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심호진 회장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어촌어항어장 및 협회 발전에 공이 큰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총회후 가진 오찬에서 임광수 수산정책실장이 협회 발전을 위한 건배를 제의했다.